

CLOSER COMMUNION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의 성례전

Clifford Kew 지음 | 홍성호 옮김

CLOSER COMMUNION

The Sacraments in Scripture and Tradition

by
CLIFFORD KEW

Thou Shepherd of Israel, and mine,
The joy and desire of my heart,
For closer communion I pine,
I long to reside where Thou art



SALVATIONIST PUBLISHING AND SUPPLIES, LTD,
JUDD STREET, KING'S CROSS, LONDON WC1H 9NN

| 인사말 |

부장 김석태

(사관, 증경사령관)

기독교 역사에서 성례전의 견해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교와 신교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신교 내에서도 교파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948년에 창설된 세계교회협의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환으로 우선 교회의 예배 의식 통일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WCC의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세례와 성만찬 사역에 관한 연구의 리마 문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서는 성례전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폭넓게 해석함으로 세계 교회들의 공감대 형성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색해 그러나 예배의식의 통일을 매개로 교회 일치를 보려는데 급급하여 세례와 성만찬 의식을 지역과 문화,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획일적인 성례전을 강요하는 내용의 문서라

는 인상을 깊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세군이나 웨이커교 같은 비 성례전적 입장을 취하는 교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크리포트 큐(Clifford Kew) 사관의 저서인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교제」를 한글로 번역, 출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성서와 기독교사에 나타난 성례전을 깊이 연구하면서 의식적인 성례전 못지않게 비 의식적 성례전이 영적으로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성례전임을 성경적으로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모든 구세군 사관, 병사들이 애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세례와 성만찬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역자의 말 |

참령 홍성효

1988년에 출판된 책을 재발행하게 되는 이유는 구세군한국군국의 증경 사령관인 고 장희동 부장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헌정합니다.

지난 1981년 싱가포르에서 1개월간 개최된 제2회 아태지역사관대학(South Pacific and East Asia College for Officer or SPEACO)에서 저와 함께 참령 조동휘, 참령 장주석, 참령 정정숙 사관 등 4명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당시 사관대학 교장이었던 장희동 부장은 한국군국의 사관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며 많은 가르침을 일깨워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주요한 강의 내용으로 장희동 교장(Peter H. Chang)은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Are You Happy Officer?”를, Ah-Ang Lim 사관은 구세군 성례전을 강의하면서 Clifford Kew 사관이 저술한

“CLOSER COMMUNION(1980)” 책자를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장희동 부장은 어느날 내게 “홍 사관은 Ah-Ang Lim사관이 강의한 구세군 성례전인 Clifford Kew 사관의 “CLOSER COMMUNION” 내용을 한국 후배 사관들을 위해 번역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을 하였다.

한국에 돌아온 나는 그 부탁을 시행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부담으로 여겨지던 차에 수 년이 지나서 번역하기 시작하여 번역물과 원서까지 구세군한국군국 본영 문학부로 보냈다. 그 내용은 당시 사관지(1987.1-6호) 제43권 1호에 연재가 되었는데 1988년 김석태 사령관(1969-1991) 당시 본영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당시 사관군령군율에는 번역자가 대한본영 사령관 이름으로 출판되어야 하는데 권성오 사관 이름으로 출판되어 실제 번역을 한 나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컸다. 당시 본영으로 보냈던 원서는 지금까지 나의 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이제 구세군 성례전에 대해 다룬 이 책의 내용을 많은 이들에게 공유하고자 역자를 ‘제대로’ 기록하여 책자로 발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은퇴사관의 입장에서 선교 2세기의 새로운 사역 현장을 미디어 중심으로 하여 쓴 글을 부록에 실었다.

| 추천의 말 |

부정령 김준철

(사관, 전 구세군사관학교장)

클리포드 큐(Clifford Kew) 사관의 저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Closer Communion)>가 홍성효 사관(은퇴)에 의해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고 장희동 부장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헌정의 뜻”을 담아 “우리 성례전을 후배 사관들에게 바르게 이해시키고 싶어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잊혀져가는 구세군의 성례전의 입장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숙독하다 보면 구세군의 성례전의 의미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세군은 성례전이 없다”고 말하는 구세군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세군이 왜 성례전의 실행을 중지하게 되었는가?”를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의 성례전”을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구세군은 성례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의식으로서

의 예전적 성례전을 구세군의 영적 의미에서 비예전적 삶의 성례전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구세군인들은 교회 안의 성례전(sacraments)이 세상속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구세군의 성례전적 삶(sacramental life)을 강조하고 있는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은 성례전을 행하는 전통 자체를 인정하며 성례전을 행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구세군은 교회 연합을 위한 공동체 성례전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므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힘씁니다.

다만 구세군인은 성령을 대행하여 의례적인 성례전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물세례, 성만찬과 같은 성례전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구세군의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는 활동적인 믿음과 내적인 변화, 생동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세군인들이 이 책을 의미 있게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애찬”과 같은 식사 공동체에 참여하므로 가

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하며,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며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행 1:8)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구세군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 차례

인사말 • 003

역자의 말 • 005

추천의 말 • 007

제 1 장 **본질이냐 그림자냐?** • 013

Substance or Shadow?

제 2 장 **확신 없는 외적 의식** • 022

No Confidence in Anything External

제 3 장 **세례의 진수** • 028

The Deafening Silence - Baptism

제 4 장 **의례적인 식사** • 037

The Deafening Silence - The Ritual Meal

제 5 장 어떤 세례인가? • 049

Which Baptism?

제 6 장 그리스도의 현존 • 062

The 'Real Presence'

제 7 장 우리의 양심을 얹매일 수는 없다 • 072

Not Binding on Our Conscience

제 1 장

본질이나 그림자냐?

Substance or Shadow?

구세군 예배 의식은 타 교파의 의식과 비교할 때 어느 예식은 고정적으로 행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점이 다르다.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성세, 견진, 성체, 고백, 병자, 신품, 그리고 혼인 등과 같이 일곱 가지 성례를 행한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한다. 비록 개신교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거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교파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거행하는 두 가지 예식에 관해서만 고찰하도록 하겠다.

물론 성례는 성서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 기원은 라틴어 sacramen tum에서 찾게 되는데 이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맹세와 엄숙한 서약이라는 의미이다.

한스 R. 웨버(Hans Ruedi Weber)는 『소금 끼 있는 크리스천(Salty Christian), 1963』에서 “신약 시대에 로마 군대의 병사가 되기 위해 서약 하는 서약식을 Sacramentum이라고 불렀다. 교회에서는 Sacramentum을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의식에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세례 식때 맹세하는 일을 Sacramentum이라고 불렀다. 비 기독교 신자 즉 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을 파가니(pagani)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군대 서약(Sacramentum)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다는 것은 이제 Pagani가 아니라는 뜻이며 세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pp. 25-26)

그리고 한 병사가 신경 과민 상태에서 맹세나 소송 사건이 발생할 때 법에 맡긴 후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말로도 사용되었다.

초기 로마 교회에서는 제롬의 라틴어역 ‘빌케이트 성경’을 권위 있는 번역으로 인정한다. 성례를 헬라어로는 ‘musterion’(μυστήριον)으로 번역했고,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번역했다. 종교적인 비밀이므로 신약에 사용된 musterion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젠 계시로 인해 깨닫게 되었다.(엡 1:9, 3:3, 9, 5:32, 골 1:27, 딤후전 3:9,16)

따라서 성례의 현대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신비로운 축복과 신자의 영성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문외한에 의한 이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와 성도의 신앙에 의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례는 어떤 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행하는 외형적 예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외형적 의식이 은혜 받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요 4:24)는 복음서에 의한 예배의 정의가 가장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임재 하심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리가 되시니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확실히 알기 원한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어떤 물질적인 상징이나 의식들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한복음 4장 19절과 26절 사이에서 참된 예배는 특별한 장소나 특이한 예배의 형태에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어떤 의식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한다는 것은 어려

은 일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힝보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AD. 354-430)은 최초로 성례는 외적으론 현세적인 동시에 내적으론 지속적인 은혜라고 했다.

구세군은 성례전을 행하는 자체를 잘못이라고 하지 않으며 타교파에서 성례전을 거행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구세군인은 다만 성령을 대행하여 성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세군도 구세군 자체의 성례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비석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나 혈화 군기 아래서 병사로 입대할 때 또 아이를 하나님께 헌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을 공개적으로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이는 내적으로 체험한 영적 은혜를 외적으로 서명 날인하는 것인데 구세군인은 내적으로 받은 은혜를 어떤 상징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시하며 조심스럽게 여긴다.

구세군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구세군에서 행하는 성례를 포함해서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며 구원이나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의 본질도 아니다.
- (2) 내적 체험을 외적으로 서명 날인하는 행위는 중요하다.
- (3)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된다.
- (4) 구세군 예배에서 전통적인 성례전을 거행하지 않고 중지하게 된 것은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7장 참조)

구세군인은 퀘이커(Quakers)의 프렌드파 성도들이 모든 기독교회가 거행하는 성례전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우리에게 예배 형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성례전을 생략하더라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성례전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만찬은 필수적으로 거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구세군인은 그들에게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3 장과 제 4 장에서 성례전 의식 거행에 관한 신약 성서와 대조하면서 자세히 밝히겠

지만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서너 차례 언급하셨다는 점과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도 필수적으로 거행해야만 된다면 그들이 성례전을 영원토록 거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정 시켰을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했다.

글로버 박사(Dr. T. R. Glover)는 『초기 로마 제국과 종교적 갈등 (Conflicts of Religions in the Early Roman Empire), 1910』이라는 그의 글 158쪽에서 ‘예수는 성례전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는 의견에 일치해 가고 있다’라고 했고, 성례론자인 히킨스(A. J. B. Higgins)는 성서 신학적인 면에서 연구한 “신약 성서에 나타난 주의 만찬”이란 글에서 ‘예수께서 성찬 예식을 계속 집례 하라는 반복 명령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부르너(Emil Brunner)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은 유효하고 확실하나 성찬 예식의 축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를 명확히 구별하는 일은 누가 침례를 받았거나 성만찬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사랑 안에서 활동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든지 아니면 제외되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침례교의 로우레이(H. H. Rowley) 교수는 ‘사람이 자원하여 몸을

물속에 담그거나 유아 침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침례를 받은 자 자신이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상징이란 상징하는 것이 외에는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러한 진술들은 교회에서 거행되는 성례를 비방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의식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를 학자들의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세군의 입장을 타 교파에서 성례를 거행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을 부정하거나, 그들의 논의를 반대하거나, 우리도 하는 체 하고 가장하지 않는다. 구세군인들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대로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을 자유롭게 세우기 전에 타 교파에서 이미 만들어 놓 가정들의 기초를 분명히 밝히고자 할 때 단지 구세군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지 타 교파의 주장들을 반박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운동체로서의 구세군은 예배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보다 포함돼 있는 요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타 교파와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구세군이 비 성례주의란 입

장으로 맞부딪치게 되므로 강력한 논쟁들을 구세군인은 인식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구세군은 교회를 하나의 큰 예배의 공동체로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의식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구세군 교리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의식의 인식 이상을 요구함이 분명하다.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 지속적인 은혜의 체험, 그리스도께 대한 공개적인 신앙고백, 복음 선포, 제자들과 연합과 친교를 알리는 일과 같이 생동감 있는 행위가 상징적으로 성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당 안에서 한정된 의식을 거행하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교리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이란 두 성례전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질문 받았을 때 구세군인은 타 교파에서는 두 의식을 거행하므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말 때 구세군인 자신들도 영적으로 체험한 은혜의 사실들을 강력하게 간증해야 할 것이다. ‘구세군인 입장에서 본 성례전’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구세군인은 상징은 다만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실체에 관한 연구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낮이나 밤 어느 때든지
거룩함으로 자유로워졌네!
내 인생의 발걸음마다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네!

Horatius Bonar(1808-1889)

(The Song Book of The Salvation Army, No.4)

제 2 장

확신 없는 외적 의식

No Confidence in Anything External

성례전의 바탕이 되는 신앙과 그 관습을 살펴보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거나 없애려는 뜻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의식의 주변에 있는 그릇된 가설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고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세군 병사가 구세군의 의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성례전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을 일반적인 면과 성서적인 면에서 상세히 살펴보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신구약은 은혜를 체험하는데 있어서 의식 그 자체가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의식에 어떤 특정한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성서와 교회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 남용되어

왔으며 처음 목적에서 이탈하여 의식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 의식주의 안에서는 상징을 실체로 여기게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며 마침내 영적 실체가 그 모습을 잃게 되고 만다. 한때 영적 실체였던 것이 후 세대에 가선 원래의 모습을 잃은 의미 없는 행사로 쉽게 변질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구약에서 할레나 성전의 이용, 유월적 음식, 흠 없는 희생 제사 체계 등과 같은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 제사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엄격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종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었다.

선지자들은 외적 표적에 의지하려는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도전했음을 알 수 있다. 시편 40:6-8; 51:17-19; 이사야 1:10-17; 예레미야 7:21-26; 31:31-34(새 언약은 외적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 호세아 6:4-6; 아모스 5:21-27; 미가 6:6-8 그러나 예언은 출애굽 하는 동안 살아졌고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서 사제적인 요소나 이전의 지배 형태로 되어 버렸는데 제사 의식만이 재창조되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사이에서 물질의 상징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고 에스라의 율법 주의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수 생전에 복음을 격렬히 비난했던 자들은 이런 율법과 제사를 강조했던 당대의 핵심 자들이었다. 상장이 의도하고자 하는 원래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실체를 무시하고 율법 주의와 의식으로 맞바꾸는 이들을 볼 적마다 예수는 이들을 반박하셨다. 이에 관한 말씀으로는 마태 복음 5:17; 12:1-13(마가 복음 2:27-28); 22:34-40; 23:1-39; 마가 복음 7:1-23; 누가 복음 18:9-14등에 있다.

이러한 구절을 살펴볼 때(특히 마태 복음 23장) 유사한 위험 요소가 내포되었는데 어떤 새로운 의식들을 예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과 비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요구했던 판단 기준에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면 성령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 만을 기본 요소로 삼았다(사도행전 15장 11절과 18절).

바울이 보낸 서신에서 그가 이러한 결정을 얼마나 지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의식의 관습을 요구하거나 충고하지 않았다. 사실 그가 논쟁했던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의식들을 반대했다. 빌립보 3:2-11 특히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 당이다.”라고 말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신자가 되는 조건으로 영적 생활의 본질로 유대교의 첫째가는 대 성례인 할례를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반박하기 위해 많은 말들을 해야만 했다. 로마서 2:25-29; 4:1-12; 고린도전서 7:17-19; 갈라디아 5:2-6; 6:12-16; 골로새 2:11; 13; 3:9-11.

율법주의와 의식 주의를 반대하며 이보다 영적인 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5:1-2; 8:1-16; 14:22-23; 고린도후서 3:6-18; 갈라디아 2:16-21; 3:2-9; 13; 14; 24-29(특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6-11; 5:18-25; 골로새 2:6-23 등에 있다.

히브리서는 예수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의 의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1. 사제를 우리의 대 제사장이신 예수로 대치했다(레 16:11; 히 5:3; 히 6:20; 7:21; 히 9:12-13; 19; 10:4; 시 11:4). 성례의 의식은 의례히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사제 직분을 유지시켜 왔다. 구세군은 이런 배타적 의미에서 사제직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여성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구세

군 병사는 ‘만인 제사장직(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는다.

2. 제단 위에 희생물은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으로 대치했다(히 7:27, 9:9-15, 27-28, 10:1-6).
3. “옛 언약은 ”성도들 심중에“ 새겨지는 ”새 언약“으로 대치했다(히 8:7-13).
4. 장막이나 성전 안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성소로 대치했다(히 9:1-8, 24).
5. 이제 예배자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히 10:22).

이상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할례와 유월절 음식을 세례와 거룩한 교제로 대치시키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겠는가?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에서도 성례전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어떤 형태에 의존하는 것을 강력히 반박한다. 만일 성례전이 초대 교회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이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신약 전반을 통해 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정말로 성례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의식에 관해 말씀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신앙과 실

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거듭 기록되어 있으나 성례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로마서 12:6-16; 디모데후서 4:1-2; 5; 디도서 1:5-9; 베드로전서 4:7-11).

제 3 장

세례의 진수

The Deafening Silence - Baptism

“세례”라는 희랍어(baptisma βάπτισμα)는 ‘잠기다’ ‘씻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baptizein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많은 종교에서 씻음은 정결함의 표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예수 당시에도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이방인들은 유대교 신앙으로 개종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다.

신약에는 적어도 다섯 종류의 서로 다른 세례가 언급되었기에 어느 구절이 어떤 종류의 세례와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도움이 된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물세례와는 관계도 없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므로 혼동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세례 요한의 세례

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과 관계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유대교 세례와는 달랐다. 그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도 회개해야 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마태복음 3:8-9).

(2) 그리스도인의 육체적인 세례 의식

이는 성인 신자들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함으로서 베푸는 세례였다. 이때 필수적으로 따르는 공식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었고 훨씬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바뀌었다. 여기서 우리는 교파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세례가 베풀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침수 방법보다는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든지 성인 세례를 반대하고 유아 세례를 강조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신약 성서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더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유아 세례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아이가 일찍 죽었을 경우를 생각하여 부모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아이의 거처를 속히 마련해 두는 신비롭고 매력적인 의식으로 생각해 왔다.

(3)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외적 표적이라기 보다는 영적 체험이다.

(4) 그리스도의 고통을 향한 세례

많은 경우에 ‘세례’는 어떤 체험을 겪은 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는 의식으로 생각한다.

(5)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세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떤 이를 대신하여 신자가 세례를 받는 경우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이는 세례 의식에 대한 오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형태의 세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신약 성서와 비교 연구해 보도록 하자.

1.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부르짖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지지했다. 예수의 경우 세례 의식은 성령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표적으로 나타냈다. 그러기에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치 않다고 거절하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태 3:13-17)고 하셨다. 이는 물 세례가 영원하신 실체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 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세례가 전부가 아니며 보다 더 영적인 세례로 대치 될 것이라고 했다(마태 3:11, 마가 1:8, 누가 3:16).

예수께서 때때로 ‘세례란 용어를 사용하실 때면 물 세례란 의미로서가 아니라 영적 의미 즉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 의미를 갖고 사용하셨던 것이 분명하다(마가 10:38-39, 누가 12:50). 공관 복음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요구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구절이 초기 사본이나 번역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훗날 마가 복음 16장 16절이 첨가되었고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께서 당시에 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구절(마태 28:19)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예수 자신의 생각이라고 보다는 훗날 초대 교회의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말이 알려지고 상용 되어졌다는 증거가 사도 행전에도 없다. 만일 있다면 “예수 혹은 주의 이름으로”(행전 10:48)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위에서 말한

두 명령들(마가 16:16; 마태 28:19)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할 지라도 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물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마태 10:1-11:1)와 칠십이 제자(누가 10:1-16)를 전도 훈련 파송 시에 세례를 베푸라는 지시가 없었고 전도하고 돌아와 결과 보고를 할 때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왔다고 보고한 기록이 없다(누가 10:17-20).

2. 요한복음

세례 요한은 요한 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사이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준 물 세례와는 달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3장 22절-23절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세례를 베풀었다는 절이나 4장 2절의 말씀도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기록은 예수께서 물 세례를 베푸셨다는 이론을 뒤엎는다. 경우에 따라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할지라도 항상 그 예식을 집행하셨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요한 복음에는 예수께서 세례에 관해 설명한바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아 한다.”(3:5)는 예수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하

였을 때 특히 전후 구절에서 명백히 언급되어 있는 데로 “물로 난다”는 표현은 육적 출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세례에 관한 성서적 기초로 채택되어 왔다. 4장 13-14절과 7장 37-39절에 사용된 “물”은 말씀의 비유로 사용되었다. 7장 37-39절에 “생수의 강”은 성령을 나타내셨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 “물로 난다”는 해석을 육체적 출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거부할지라도 4장과 7장에서 언급된 “물”이 영성 생활을 의미한다고 믿는다면 3장에 “물로 난다”는 표현이 영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간주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 세례를 강요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것 같다.

3.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관습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내세울 만한 확고한 증거가 없다. 의식은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상징이라고 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구세군은 표적으로서의 세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그리스도인의 되기 위한 본질로 간주하는 사실에 대하여 반대한다.)

사도행전에서 세례는 두 경우(8:36-38; 10:47-48과 11:16-17)에서만 물 세례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자

의 경우 성령 세례가 물 세례에 앞서 일어났으므로 (10:44) 성령 세례는 물 세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술사 시몬의 경우는 그가 이미 세례를 받았음에도(8:9-24) 비 그리스도인이라고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았다. 그 외에도 요한의 물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성령과 함께 하는 세례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11:15-16; 18:24-26; 19:1-7), 물세례가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구절은 2:41; 9:19; 22:16; 16:15; 33; 18:8절 등이 있다.

그러나 “세례”와 “성령의 선물”이 나란히 언급되어 있는 곳마다 (1:5; 2:38; 8:13-17) 두가 세례를 동일 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성령 세례를 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이전의 물 세례 관습이 초대 교회에 어느 정도 이어져 왔다 할지라도 성령의 선물을 받는 체험은 물 세례와 무관하며 성령 체험이야말로 말로 외적 의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4. 서신들

물 세례의 관습은 서신에서 더욱 지지를 받지 못한다. 로마서 6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골로새서 2

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21-22절에 나타난 세례를 살펴보면 외적 의식보다 영적 체험을 우선적으로 관련시키고 있는 듯하다. 외적 의식을 거행했다 할지라도 내적 경험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는 물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씻는 의식”이 언급되어 있다. 만일 물세례의 의미가 있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에게 “토론을 멈추고”(6:1)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6:3) 와 권면하는 “기독교이 기본 원칙”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물 세례의 가치를 깎아 내리고 있는 듯하다. 10절과 16절 사이에서 물세례가 고린도교회에서 드물게 의식을 베풀었던 단편적인 관습으로 여겼으며 17절은 이 세례가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이 아니라 일부에 불과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15장은 이미 고린도교회에서 실재화 되어 버린 의식(죽은 자를 대신하여 받는 세례)이 오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29절).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세례”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세례임이 틀림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뚜렷한 표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례이다(로마서 8:9, 에베소서 1:13).

세례 문제로 야기되는 분파나 오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교회

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제 5 장 참조).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세례를 받기를 원하신 일이 없고 초대 교회에서도 영적 체험이나 교회 성원이 되는 본질로서 물 세례를 간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외적 표시에 얽매일 것 없이 직접 성령 세례를 체험하도록 할 수는 없겠는가? 한 익명의 구세군인 작가는 ‘성령이 함께 하는 세례는 성령 없는 물 세례보다 훨씬 더 성서적이다’라고 했다.

제 4 장

의례적인 식사

The Deafening Silence - The Ritual Meal

‘주의 만찬’인 성례전 의식은 성찬과 미사가 거룩한 교제로 여러 교회에 알려져 있다. 이 의식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최후의 만찬인 것으로 보통 생각되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조상들을 기억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지켜졌던 기독교 이전인 유대인들의 축제로서 유월절 식사로 여겨진다(출애굽기).

예수께서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유월절 식사의 형태가 어떠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 (1) 10-20명 모임의 대표가 물에 희석한 붉은 포도주 네 잔 중에 첫째 잔을 축복하는 긴 기도를 드린 후 잔을 돌린다.

- (2) 모든 참석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 (3) 각자가 쓴 약초를 받아서 식초와 소금물을 섞은 접시에 떨어뜨린다.
- (4) 대표자가 누룩 없는 빵을 들고 뜯어서 옆 사람에게 분배한다. 떼어 받은 빵을 먹기 전 달콤한 소스를 발라서 먹는다.
- (5) 한 소년이 이 축제의 의미에 관해 질문하면 모임의 대표가 이에 대답한다(출애굽기 12:26-27, 13:8).
- (6) 시편 113편과 114편을 노래한다.
- (7) 둘째 잔이 돌려진다.
- (8)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렸던 구운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과일즙을 친 약초로 주 식사가 베풀어진다.
- (9) 옆으로 비스듬하게 생긴 빵을 옆에 앉은 사람에게로 넘긴다. 셋째 포도주 잔을 마신다.
- (10) 감사 기도를 드린다.
- (11) 셋째 잔이 나누어진다.
- (12)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노래한다. 시편 136편을 노래하는 동안 마지막 잔이 나누어진다.

이상과 같은 형태로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졌다.

예수께서는 이 식사의 어떤 요소를 강조하셨으며 또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이 형태를 따르셨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예수는 주인의 위치에 앉으셨다. 그리고 손을 씻는 대신 제자의 발을 씻으셨다(요한 13:3-7), 유다에게 빵을 한 조각 건네주심과(마가 14:18-21; 요한 13:21-30) 떼어 준 빵이 자신의 몸이라고 상징적으로 언급하심은(마태 26:26; 마가 14:22, 누가 22:19) 아마도 잔이 둘러진 것과 같다. 예수의 보혈에 관한 언급은(마태 26:27-29, 마가 14:23-25; 누가 22:17-18) (8)번이나 (10)번에 해당될 것이며 (11)번의 시편 노래는 마태복음 26장 30절과 마가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런 형태가 ‘올바른’ 유월절 식사였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식사가 목요일 저녁(유월절의 시작일)에 베풀어졌다고 명확히 밝힌 데 비해 요한은 유월절 전(13:1) 아마도 수요일 저녁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목요일 오후(19:14-31) 성전에서 어린 양을 죽이는 일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연결시켰다. 좀 불규칙한 유대 월력의 특징 때문에 어는 날이 확실한 절기의 시작인지 유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식사가 유월절의 형태를 따랐다는 것이다.

1. 공관 복음(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의 설명에 비해 누가의 추측은 약간 혼동되어 있다. 흠정역에 따르면 포도주 잔은 두 번 언급되었는데 첫 번은 빵을 떼기 전(누가 22:17-18)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라고 강력히 부인한 말씀에 나타나 있다. 어떤 학자들은 누가나 나주의 편집자가 성서 기자들의 불일치를 조화시키지 않은 채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 서로 다른 설명(22:15-19; 22:19-20)을 나란히 두었다고 여겼다. 이러한 견해는 가장 오래된 사본에 20절이 생략되었다는 점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결정적인 구절도 없다는 살로 더욱 지지되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은 The New English Bible이나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는 모두 생략되었다. Good News Bible의 경우는 이런 말들이 어떤 사본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을 주석으로 달아 놓았다.

18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웨스트코트(Westcott)와 호트(Hort)는 헬라어 신약 표준판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질문될 만한 말들이 누가복음 원본에는 빠져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이 명령이 원 복음서의 부분이 아니라면 특별히 다른 어느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께

서 실제로 하신 말씀인지 매우 미심쩍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마가를 베드로를 위한 ‘유령 작가’로 추정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께서 하신 결정적인 명령으로 전부터 받아들여 온 것을 부주의하여 빠뜨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성례전 의식 거행에 관한 내용이 누가복음 사본의 몇 구절만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 예수께서 이 의식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실제로 단순하였을 것이다. 앞으로 유월절 식사 때마다 모세와 출애굽(출애굽 12:14; 13:3; 9)을 기억하는 대신 아니 그 기억에 대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유대인이든 비 유대인이든)들이 언제든지 이 의식을 지키도록 하려는 의도로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지키도록 지시하셨을 것이다. 유월절이 해마다 지켜졌던 점으로 비추어 이에 관한 어떤 명령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확실히 연례적인 기념 절기로 제정되었을 것이다.

마태 복음에 관한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의 주석을 인용하면 ‘최후의 만찬은 참된 식사였다. 사실 식사 때면 온전한 양과 그의 모든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 율법에 있다. 이때는 빵 한 조각을 먹고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는 아니었고 오히려 굶주린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 주는 그러한 식사였다. 예수는 거룩한 교제의 식탁에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간단한 저녁 식탁의 주인이 되시기도 한다.

2. 요한 복음

요한 복음에서도 뚜렷이 다른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당시 교회에 이미 널리 알려진 빵과 포도주에만 전념하는 의식적이 행위를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애와 십자가상의 죽음이 미치는 효력에 관한 상징을 세심한 배려로 상징화한 것처럼 기록했다. 유월절 빵 대신 주님이 무리를 먹이신 사건(6장)과 “생명의 빵”을 연결시켰고 포도주 대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 13장에서 16장까지는 제자들에 게 유월절 빵과 포도주 대신 영성 생활에 관한 긴 강론을 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상징적인 행위도(13:3-17) 이에 포함되어 있다. 빵에 관한 언급은 유일하게 예수께서 유다에게 빵 조각을 건네줄 때뿐이었다. 예수께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13:14; 15; 17),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는 명령을 예수께서 실제 하신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왜 그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교인들을 위해 영원히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요한은 상징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심사숙고한 후 “하나나 두 개의 의식에 집중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상징을 사용하라. 그리고 그것들 중에 어느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포함된 영적 의미이다 (6:63)”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6장 26-35절, 48-58절, 7장 37-38절 같은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기자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말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최후의 만찬”에 관한 공관 복음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요한 복음과 비슷한 점을 택해야 할 것이다.

3. 사도행전

더 나아가 사도 행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과 승천, 오순절에 기독교 교회의 시작 이외에 그 어디에도 의식을 기억하라는 교훈이나 준수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함께 모여 떡을 떼거나(2:42) 친교하며 식사했다. 이러한 나눔은 모든 소유를 나누는 것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다(2:44-46; 4:32). 이 모임은 개인 가정에서 행해졌으며 (2:46) 의식적인 제안(20:7; 11; 27:33-38)이나 포도주의 사용도 없었다.

고겔(Maurice Goguel)은 『초대 교회(The Primitive Church)』에서 “그것은 빵 한 입, 포도주 한 모금을 받는 상징적인 식사 아니라 참된 식사였다”고 했다.

사도 행전에 기록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교제하기 위해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이다. 베드로 당시의 교회 기록에선 예수께서 그 무렵 제정하셨을 것으로 추측되는 의식 준수에 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지 않은가?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확실히 가까운 예외가 있다면 사도 행전 20장 7절의 기록이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의식은 이전에 단지 공동 식사에 불과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사도 행전의 저자가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는 말씀을 유일하게 포함시켰던 복음의 저자가 누가라는 점을 기억해보라. 사실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신 분명한 명령으로 이를 인용했다면 사도 행전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당연히 기록하지 않았었겠는가?

4. 서신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또한 “이를 행하라”는 구절이 있다(11:24). 이 서신은 복음서 이전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며 누가 복음에서 이 구절을 나중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 서신으로부터 연유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 5장 6-8절에서 유월절 빵은 순전히 설교의 비유로

사용했다. 10장에서는 더 생생하게 비유적인 언어로 사용했다. 모세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성례도 잘 지켰으나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5절).

고린도전서 10장 16-17; 21-22에서 “최후의 만찬”이 갖는 성례전적 기념에 관한 언급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러한 의식 준수가 쉽게 영적인 오만과 그릇된 확신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성례를 준수한다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니 그릇된 믿음으로 잔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7). 히긴스(A. J. B. Higgins)는 “정식으로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해 온 사람은 성례전의 준수를 피하지 않을 것이나 성례전 자체에는 마술적인 힘이 없다고 했다.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17-34)에서 바울은 성례전 식사가 갖는 위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한다. 고린도서에서 공동 식사는 예배 행사보다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거의 굶주리고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최고급의 식사를 하는 현상을 보고 신자들은 자기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눴었다(20-21). 모든 소유를 나눈다는 관념은 잊히고 말았다. 모든 사

람이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확신 없이 공동 식사를 나누는 것보다 잘못된 것이 없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²¹⁾ 이런 행동은 공동 식사 of 건전한 이상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떤 측면에선 복음서의 내용과 차이 있는 최후의 만찬에 관한 바울의 기록에서⁽²⁴⁻²⁶⁾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이 “주님으로부터”온 것이라고 말만 할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아 왔고 거쳐 온⁽²³⁾ “전통”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은 바울이 이곳에서 직접 계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신앙고백의 흐름 즉 예수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 바울이 받는 신조라고 했다. 쿨만(Cullmann)은 계속해서 말하길 “주께로 부터”라는 가르침이 언급된 다른 유사한 어구에서(고린도전서 7:10; 25; 9:14; 데살로니가전서 4:15) 바울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라는 인정된 가르침에 관해 말하고 있다.

초기에 언급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바울이 이곳에서 공동 식사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태도는 식사에서 음식의 중요성을 최소화 시키고 영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문자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비성례 주의자들의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주의 만찬을 준수하는 것은 언제나 지켜야만 하는 예수의 어떤 의도보다 고린도의 특별한 상황에서 바울이 내린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편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식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그러한 태도를 비난받아 마땅하며 무슨 일이든 상징은 중요성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만 한다고 한 경고(고린도전서 11:29)에 주의해야 한다.

히긴스(A. J. B. Higgins)는 바울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공동 식사는 그만 중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로써 그는 공동체 식사로부터 성찬 축하를 분리하고 마무리했던 과정이라고 이해했다.

성례전과 관계있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종종 예수께서 하신 명령으로 생각했으며 초기부터 교회 예배의 중심이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이 의식이 신약의 대부분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교회 절차에 관한 것이다. 야고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유다가 기록한 일곱 서신과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 요한 계시록 등에는 이 문제에 관해 모두 잠잠하다. 이 모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유일하게 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적용했던 의식을 고린도전서 한 구절에 막중한 비중을 두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로마서에는 주의 만찬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본 성례전을 본질적으로 간주하는 자들이 수세기 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통해 초대 교회를 돌아보고 신선한 눈과 편견 없는 마음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기보다 이미 확신 되어진 그리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행위들에 관한 고대 저서들을 다시 읽는 일은 당연할 것이다.

Philip Layton 사관은 『구세군 입장에서 본 성례전(The Sacraments—The Salvationist's Viewpoint, 2007)』에서는 “구세군 병사는 항상 자신의 삶을 복종 시키기 위해 심중에 묻고 있는 질문은 ‘종교적 의식으로 서 내가 주의 만찬에 정기적으로 참석해만 하는가?’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주의 영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고 했다.

오스본(Albert Orsborn) 대장이 지은 가사 가운데 구세군인의 삶의 태도를 잘 나타낸 구절을 소개한다.

내 삶은 주가 떼신 떡 내 사랑 그의 잔
주 이름으로 만찬상 베풀어 놓셨네
다 와서 함께 배불리 그 생명 받으라.
(구세군가 642장 1절)

제 5 장

어떤 세례인가?

Which Baptism?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17절에서 세례가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어느 교회의 지도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소수의 고린도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헨리 채드윅(Henry Chadwick)은 『초대 교회(The Early Church, 1987)』에서 “바울의 이러한 해석은 주후 55년경에 쓴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교회 역사가 여러 단계를 거쳐 오면서 세례 의식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다고 논평 했다. 그러나 세례로 인해 초대 교회는 교리 신조의 발전을 보게 되었으니 세례 의식의 좋은 부산물이라고 하겠다. 일찍 부터 세례는 세례 서약과 함께 행해졌는데 세례 서약 시에 죄를 버릴 것과 귀신의 힘, 우상, 점성술, 마

술 등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거부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 선포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속죄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활동할 것을 선포했다. 신앙 선포는 교리 문답 형식으로 하였고 세 번 물속에 잠기는데 삼위일체에 대하여 각각 한번 씩 묻고 대답하면서 침수례 의식으로 거행되었다”고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례 의식에 관한 준비 기간이 점차 3년으로 연장되어져 좀 더 철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리 문답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되었던 예를 들어 2세기 말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세례 신조에서 사도 신경이 시작되었다. 4세기 까지 서방 교회에서는 세례가 신앙 고백에 불과했다(세례 준비 기간 전에 순교 당했던 회개인은 효과적인 피의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세례 의식의 내용과 신조의 차이는 세례 의식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고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원래는 강이나 호수에서 완전한 침수 의식이 거행되었으나 2세기 초부터는 피치 못할 경우나 병상에 있을 경우에는 몸에 물을 끼얹는 세례가 행해졌다. 2세기 말까지 혹자는 세례가 마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음으로서 세례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죄가 씻긴다고 생각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세례 의식 가운데 귀신을 쫓거나 기름을 붓는 의식도 찾아 볼 수가 있었다.

3세기에는 주교가 인도하는 세례 의식 가운데 신자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안수기도가 포함되었다. 카르다고의 터툴리안(Tertullian of Carthage)은 세례에 관하여(Baptism in the early church : history, theology, and liturgy in the first five centuries)에서 유아 세례(Antecedent of Christian Baptism)를 비난 했으나 3세기 중엽까지 유아 세례가 흔하게 행해졌다. 터툴리안(Tertullian)은 만년에 금욕주의적인 몬타니스파(Montanists)에 가담하였는데 그들은 세례를 받은 후 죄를 범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으니 복음의 보편성을 제한했다. 때문에 다른 교파들은 몬타니스파에서 시행되는 세례 의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예로서 자유의 몸이 되어 217년부터 222년까지 로마의 주교로 역임했던 켈리스트스(Callistus)는 보다 온건한 노선을 취했다. 그는 죄 지은 자가 진심으로 회개만 한다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였지만 얼마 후 로마의 한 장로인 노바시안(Novatian)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박해로 인해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서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갔다. 251년부터 시작된 분열이 7세기까지 계속되었다. 노바시안파(Novatian)는 자기 파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 집행된 세례를 모두 무효로 간주하고 다른 파로부터 그들에게 합류하고 할 때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만 된다고 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정통파 혹은 카타리(Cathari)라고 불렀고 12-13세기에는 이교도들도 이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249년부터 258년까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사이프ريان(Cyprian)은 박해 당시 그리스도인의 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 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박해 당시 숨었던 자였다. 그 후 사이프ريان은 분열파에 속했던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로마 주교였던 스티븐(Stephen, 254-257)과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었다. 사이프ريان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스티븐은 세례는 성 삼위 이름으로 의식을 집행하는 한 누구가 집행하든지 유효한 것이며 세례 의식의 진정한 의미는 성례를 집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성령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라는 사이프리안의 반박에 스티븐의 분

열 파는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안수를 받아 재조정되어야 하고 성례는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쟁은 스티번이 사이프리아를 적그리스도라고 비난하므로 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스티번은 257년에 죽고 시이프리아는 258년에 순교 당했으나 그와 유사한 논쟁은 55년 후인 도나투스파(Donatists) 위기 때에 재현 되었다. 다시 도나투스파는 카르타고의 가톨릭 주교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은신했던 자가 성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의 위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도나투스파는 노바시안파와 같이 자기파 외에 다른 파에 의해 실시된 성례 의식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주후 313년까지 콘스탄틴 대제(Emperor Constantine)는 기독교를 로마의 승인된 종교로 공포했다. 그는 교회는 단일성과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도나투스파에 압력을 가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콘스탄틴 대제는 313년부터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337년)에 이르기까지 세례 받기를 거부했다. 세례를 늦게 받는 행위는 5세기까지 유행했는데 그 이유는 초기 몬타누스파(Montanists)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고 치명적인 범죄

를 피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그러므로 세례 받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매우 신중하게 거행되었다.

4세기 세례 의식은 점차 엄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예를 들어 로마에서는 모든 세례는 반드시 주교가 집행해야 하며 그 주교의 위치에 이르자면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만 했으니 즉 낭독자, 복사(보좌), 부사제, 사제(30세 이전에는 불가하며 부사제로 5년 사역한 후에 된다), 주교(사제로 10년 사역한 후)의 단계를 거친 적어도 45세 이상 된 주교만이 모든 세례 의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다.

4세기에는 세례를 위한 준비 제도가 절정에 달했다. 세례 받을 후보자를 위한 강습이 매년 부활절전 40일간(사순절) 개최되었다. 세례 받을 후보자들은 성주간을 철야와 금식으로 지내고 세례 후에 교육이 부활절 다음 주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양식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 예로 밀란 에서는 세족식이 세례 의식의 일부분이었다.

396년부터 430년까지 북 아프리카 히포(Hippo)에서 주교를 지낸 어거스틴은 인간 성직자들이 무가치하다 할지라도 성례 의식에서 신자들에게 의식을 주관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이기에 최초의 분열 파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므로 서 로마의 스티번이 영적인 계승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성례 의식이 그들에게는 무익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어거스틴(Augustine)이 펴낸 『원죄에 관한 교리(The Doctrine of Original Sin)』에는 인간은 본래 사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총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세례란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유아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신조는 특히 유아의 사망률이 극히 높았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유아 세례의 강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유아 세례는 교회 안에서보다는 개인의식에 의해 출생 시 수분 내에 산파에 의해서 행해졌다. 주교가 행하는 안수례는 아동기 말기까지 지연되거나 종종 완전 무시되었다.

그러므로 5세기부터 일반 세례 의식의 관습은 유아 세례가 되었고 성인을 위한 세례 의식은 점차 감소하여(사실 시리아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의무화했다) 초대 교회의 세례 의식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단 한 가지 유사점은 물을 사용했다는 점이다.영국의 수도승 펠라기우스(Pelagius)와 특히 그의 사제인 세레스티우스(Celestius)도 『어거스틴의 원죄론(Augustine's doctrine of original sin)』에 반대했다. 그들

은 죄란 개인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며 개인의 선택 없이는 죄가 될 수 없다고 믿었다. 아담의 죄는 단지 불순종을 나타내는 운명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자동적으로 인간에게 죄나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악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세례를 통해 성화에 이르고(죄 사함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은 지옥의 변두리라는 림보(Limbo)는 행복한 장소에 머물게 된다는 모호한 말을 했다.

펠라기우스(Pelagius)의 추종자들은 세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자 에베소 회의(Council of Ephesus, 431년)에서 어거스틴의 교리와 의식이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세례 교리와 의식에 관한 협의만은 교회 내에서 여전히 보편화 되지 않았다. 그 예로 6세기말 경에 어거스틴이 캔터베리의 주교가 되었을 때 켈틱 교회(Celtic Church)를 로마 교회와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세 가지 장애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 가지 장애물 중에 하나가 세례의 양식을 달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의 변화가 미비했던 중세 암흑시대 말기에 피터 롬바드(Peter Lombard, 1100-1160)는 12세기 초에 빅터의 성 휴(Hugh of St. Victor)에는 30가지 성례 의식의 수를 직접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

되었다고 간주된 일곱 가지로 그 수를 축소시켜는 데 그 일곱 가지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의 보이는 표식이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 일곱 가지 성례의 내용은 1215년 4차 ‘라테란 회의(Lateran Council)’에서 승인했다. 13세기말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74)는 성례 의식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의를 재 진술하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성례를 시행해야 된다고 가르쳤다. 세례는 영원히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아퀴나스는 신교 개혁자들의 면전에서 트렌트 회의 때 그의 정의를 재 진수하였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로마 가톨릭의 위치를 지켜 온 것이다.

12-13세기에 안수로 영적 세례를 베풀었던 카타르 이교도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진 세례라고 믿었다. 대부분의 카타르 이교도들은 세례 후에 요구되어지는 생활이 극히 엄격하여 임종 시까지 세례 받는 것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관여하고 있는 한 영적 세례의 중요한 표식으로 남아 있다.

세례 교리가 종교 개혁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는 아니지만 루터는 성례전의 수를 고해를 포함해서 세 가지로 줄였으나 로마 가톨릭과 거의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신약에 나오는 성인 세례를 정상

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유아 세례를 강조하였다. 그는 완전 침수를 필수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겼으며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는 죄 사함과 재생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영국 성공회 개혁자들도 이 성례 문제에 관해 로마 가톨릭과 같은 입장을 지속해 왔다. 주리히에 있는 츠빙글리(Huldreich Zwingli, 1484-1531)는 루터보다 극단적이었다. 그는 성례의 수를 두 가지로 줄이고 성찬과 세례의 로마식 정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결국 그는 세례가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비성찬론자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된 셈이다.

제네바의 칼빈(John Calvin, 1509-64)은 츠빙글리(Zwingli)와 같이 성례 의식을 두 가지로 제한했으나 극단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세례를 받으면(유아 세례도 포함하여)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에 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그의 모든 가르침에 있듯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예정되어진 자들만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주리히(Zurich)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현대 제일 자유 교회’를 조직한 츠빙글리(Zwingli)도 한갓 보수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다. ‘재세례파(Anabaptists, rebaptizers)’라는 별명은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완전 침수를 통해 받은 세례 교인을 다시 세례 받게 하는 그들의 의식 때문에 얻게 된 것이다. 도나투스파는 다른 교파에서 온 신도들에게 재 세례를 시행했다고 천년 묵은 국법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되었다.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로마 가톨릭에 합세하여 재세례파를 박해했으나 재세례파들은 유럽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는 영국 침례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영국 침례교인들은 모두 유아 세례를 반대했고 교회 정치는 회중 교회의 형태를 취했다. 몇몇 침례교인중에는 칼빈주의자 이었으나 (특별 침례교인) 나머지는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일반 침례교인’들이다.

일반 침례 교인들은 요한 스미스(John Smyth)에 인도를 받아 암스테르담으로 피난 온 회중들이다. 1608년 에 요한 스미스는 스스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세례를 베풀 만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회중 가운데 일부분은 1692년 영국에 돌아와 스피탈필드(Spitalfields)에서 제일 침례 회중교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1638년 영국 사우스 워크(Southwark)에서 첫 번으로 ‘특별회중 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시민전쟁과 영연방 공화국 당시 특별 침례교회 교인들의 영향력

은 우세했다. 이때까지 세례는 물을 끼얹는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1641년 특별 침례교회 교인들이 완전 침수례를 다시 채택하였고 후에 더욱 우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특히 침례교 연합회에서 칼빈주의자들의 외양이 크게 바뀌었으니 복음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17세기에 퀘이커 교도들(Quakers)은 조지 폭스(George Fox, 1624-91)의 지도 아래 프렌드파(a Society of Friends)가 창립되었다. 처음에 ‘퀘이커’라는 말은 ‘재세례파’ ‘크리스천’과 같은 말처럼 조롱하는 말투로 씌어졌다. 폭스(George Fox)는 종교의 외형적인 면에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두 개의 성례마저도 포기했다. 퀘이커 교도들처럼 우리 구세군도 ‘표식’으로서 세례를 완전히 포기했다.

구세군 병사들은 이제 세례 의식이 여러 세기를 두고 어떻게 서서히 변경되어 온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세례는 교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는데 필요한 의식이요, 거듭나게 하는데도 필요한 의식이라는 해석으로부터 세례는 재 구원에 그리 필요하지 않은 표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영적인 해석으로 옮겨가기까지는 수 세기에 걸쳐 서서히 발전하게 되었다. 퀘이커 교도들(Quakers)처럼 상징(sign)을 포기했다. 도널드 레이크(Donald M. Lake)는 “성례전은 영성과 형식의 통일을 성취하는데 너무나 자주 큰 방해가 되어 오

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세례의 신조와 의식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세례 신조와 의식에 관한 역사에서 우리는 이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 6 장

그리스도의 현존

The 'Real Presence'

헨리 채드윅(Henry Chadwick)은 “초대 교회사(The Victorian Church)”에서 ‘콘스탄틴 이전에 실제로 거행된 의식의 형태와 양상은 지나친 암시와 단편적인 증거만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과 34절에서 초대 교회가 ‘공동 식사(common meal)’를 오용하고 있음으로 성례전적 기능과 친교적인 공동 식사로 분리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독일의 성서학자 아돌프 본 하르낙(Adolop Von Harnack)은 ‘바울이야말로 성례전 신학을 분명한 사상과 엄격한 영적 고찰로 점진한 초대 교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학자였다’고 했다.

콘스탄틴 황제(Emperor Constantine)가 주후 321년에 일요일을 휴

일로 선포하기까지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주일 예배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드렸다. 112년 로마의 비두니아(Bithynia) 총독 플리니(Pliny)가 트라얀(Trajan) 황제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날을 정해 놓고 그날 날이 밝기 전에 모여서 엄숙한 서약을 하고 그리스도를 신으로 모시고 찬송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 그 모임을 마친 후 일단 산회하였다가 다시 모여 보통 식사 때처럼 식사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아침에 드리는 주요한 예배는 ‘주의 마찬’ 혹은 성찬(감사)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런 의식이 여러 세기를 지나면서 1, 2세기의 밀교적인 상징과 의식의 사용으로 이교적인 신비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 도다 형식화되었다. 주일 저녁마다 친교 식사(아가페 혹은 사랑의 식사)를 베풀었지만 3, 4세기에 이르러 점차로 사라지다가 5세기에 이르러 교회 회의는 이 행사를 금지하였다.

가정 집회에서 ‘공공건물에서의 집회’로 바뀌지면서 성찬 의식을 더욱 철저히 지키게 되었다. 아침 예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1부는 모든 이에게 개방하고 2부의 성찬식은 세례 받은 신자들만 참여하게 하였다.

디다케(Didache 70-110년 사이의 교본)를 통해 기도문과 기독교의 사역이 초기부터 두 단계(장로와 집사)로 구분하여 발달되기 시작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나눔은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1세기말)가 보낸 첫 번째 편지에도 있다. 그의 의견으로는 예식은 반드시 감독이 인도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115년경에 사망한 안디옥의 이그나티오스(Ignatius)는 성찬은 교회 일치를 이루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며 이 의식을 지방의 감독이 직접 주재하여야 한다고 했다(당시의 감독은 한 도시의 교구 감독자였다).

성찬 의식이 때로는 잘못 이해되기도 했다. 2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몸을 먹는다.'고 하여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성례전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 이교도 작가 켈서스(Celsus, 180년경)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언급하는 가운데 포도주를 약간 이라도 섞은 것을 조금 입에만 대도 즉시 체포를 당했다고 한다.

2 세기 중엽에 이르러 공동 식사는 하나의 의식으로 변화하였다. 125년이란 세월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행하셨던 순박한 행위가 하나의 의식으로 변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으니 초대 교회는 이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과 예배의 규율을 표현했다(모리스 고겔, Maurice Goguel).

150년경 로마의 저스틴(Justin)은 ‘수난절의 추억(A memorial of the Passion)’에서 의식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묘사했다. “이때 회중의 대표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온다. 그러면 그는 빵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얼마 동안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천지의 아버지이신 성부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이처럼 합당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 기도가 끝나면 집사들은 모인 자들에게 감사를 드린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모임에 참석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위해서도 한 몫을 떼어놓는다. 왜냐하면 이는 보통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보혈이기 때문이다.”

오리겐(Origen, 185-254)은 이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빵과 포도주가 성례전의 음식이 되며 이것으로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본질을 나누어 받는다는 믿음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180년경 리온의 감독 이레니우스(Irenaeus)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노스틱파(the Gnostic)의 이론을 반박하면서 그는 성찬엔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것이 모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늘에 제단’이 있다고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교회의 ‘전통

에 주안점을 두었고 이런 사상이 3세기에 이르러 발전되었다. 사제직에 관한 구약의 사상을 인용하여 성찬을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제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즉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했다.

여러 계급의 사제들이 집례 하는 의식을 강조하므로 서 점차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를 구분하게 되었다. 3세기의 감독들은 ‘성하’라는 존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세기에 헬라 교회는 회중이 재단을 볼 수 없도록 가리기까지 했다. 그 후 회중은 포도주를 받지 못하고 다만 빵만을 받았다. 사제가 사용하는 촛대와 제사장 제복도 이때에 생겼으며 8세기에 라틴어로 된 미사의 의식 문을 회중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음성으로 암송했다.

세속적인 정부와 화려한 예식이 교회의 예배 의식에 반영되었고 간혹 교리와 의식이 교회 정치 싸움의 공격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다.

4세기에 이르러 실제적인 변화가 빵과 포도주에서 생긴다고 믿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의 감독 시릴(Cyril, 315-86)은 그의 저서에서 ‘나는 여러분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보통 음식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바로 그의 살이요 피 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훗날 ‘화체

설'(Transubstantiation)이란 용어와 교리가 생겼다. 사제가 봉헌하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설이다.

이 교리는 9세기 파스타시우스 라드버투스(Paschasius Radbertus)가 더 명확하게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성찬 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변화는 영적인 변화가 있을 뿐이고 빵과 포도주는 여전히 물질일 뿐이라는 투이스의 베렝가르(Berengar)와 그 밖의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15년에 제 4차 라테란 회의(Lateran Council)에서 정식으로 화체설이 신조로 수락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페르터 롬바르드(Pertter Lombard)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가르침은 '성례전은 그 의식을 시행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은혜를 베풀게 되며 행어나 화체된 포도주(substantiated wine, 그리스도의 피)가 옆질러질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회중에게 포도주 잔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옳다'고 가르쳤다. 죽은 자를 위한 미사도 또한 퍼지기 시작했다.

14세기 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9-84)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에서 다만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계실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찬 허스(Jan Huss, 1370-1415)와 그의 추종자들은 회중에게 포도주의 잔을 돌리지 않는데 대하여

비난했다. 1415년 콘스탄스 회의(the Council of Constance)에 참석하여 자기의 소견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화형을 당하고 말았다.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 개혁자들은 대체로 성례전을 통해 구원을 주도하는 교주 정치제도로서의 중세기적 교회 사상을 거부했다(패커, J. I. Packer). 그들은 일곱 가지 성례 의식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으로 여겨지는 2-3개의 의식만은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 종교 개혁자들이 7가지 의식 가운데 5가지의 성례 의식을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볼 수 없어서 폐지한 것이라면 나머지 2가지 의식도 같은 근거에 입각하여 폐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구세군의 주장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또한 ‘화체설’ 교리를 반대하는데 일단 일치 단합하였으나 다시 이견이 생겼다. 에라스무스(Erasmus, 1466-1536)는 그의 저서를 통해 ‘신약 전체를 읽어보아라, 그러면 당신의 이런 의식에 관하여 언급한 어떤 계명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의식들의 차이는 다툼을 가져온다.’라고 언급했다.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은 불가피하므로 결국 루터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한 사람이다.

그러나 루터는 사실상 온건한 종교 개혁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배에 많은 중세 의식을 그대로 보존하기 원했고 에라스무스처럼 극단주의를 원하지 않았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실재를

민었고 양체 공존설인 ‘화체(consubstantiation)’란 용어를 동전에 만
들어 내기까지 했다. 그의 계승자 필립 멜랑크톤(Philip Melanchthon,
1497-1560)은 영교는 단순한 기념 의식 이상이라는 것을 성서에서
보여준다고 계속 주장했다. 한편 츠빙글리(Zwingli)는 ‘눈에 보이는
물체가 영적인 은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례전
을 은혜 받는 수단으로서 보다는 상징과 표식으로 생각했다’. 오웬
채드윅(Owen Chadwick)은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청교도적인 열심으로 추리히 교회에서 중세기적인 화
려한 의식들을 말끔히 없애 버렸다. 마루부르그(Marburg)의 대 토
론회(1529년)에서 루터와 츠빙글리는 성례전의 의미와 의식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심한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위대한 조직가 존 칼뱅이 이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다. 칼뱅
은 성례전을 단순히 상징으로 보는 츠빙글리의 생각을 부인하면
서도 성례 의식에 그리스도의 실재라는 마술적인 믿음을 경계했
다. 그는 성례전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여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
다고 예식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 그 자체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1547년 트렌트 회의(the Council of Trent)는 로마인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회답을 주었다. 그들은 화체론(Transubstantiation)

과 기존의 중세기 성찬 의식을 시행하였고 트렌트 회의에서 신약의 성례전은 이 성서가 의미하는 은혜를 내포하고 있으면 ‘단순한 외적 표시’만 이 아니라고 선포했다.

프로테스탄트 활동의 제 3 주류는 영국 국교회 주의였다. 이 파의 개혁가들은 칼뱅파보다 훨씬 보수적이어서 공동 기도서(1552년)를 간소화하고 성찬식의 의문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신자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추도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청교도들, 분리주의자들, 침례주의자들 사이에는 의견 차이로 인해 분열과 상호 파문으로 바벨탑 시대의 정황을 이루었다. 침례주의자들 사이에는 의견 차이로 인한 분열과 상호 파문으로 바벨탑 시대의 정황을 이루었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웨이커 교도들은 형식적인 성례전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예배 집회에서와 식사 전의 고요한 침묵의 시간에서 그리스도의 실재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승화는 순간 그들의 삶 전체가 성례전이 된다고 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9세기의 브레드렌(Brethren, 형제 교회)은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를 강조하고 모든 신자들의 사제화를 표현하기 위한 간단한 성찬식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구세군인은 성찬 의식을 지키지 않고 과연 어느 의식이 옳으냐는 질문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정당화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성찬 의식에 관하여 보편적인 합의가 없었고 각 교파마다 자기네 의식만 옳다고 믿고 그들대로 의식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를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을 가져왔고 최근 에큐메니갈 운동이 치유하고자 애쓰고 있지 않은가!

프레드릭 쿣츠 대장(General Frederick Coutts)은 『구세군 약사에서』(No Discharge in this War)에서 “구세군인은 어떤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도 단순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으며 신령한 은혜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구세군인은 그리스도의 실재(혹은 현존)를 가장 열렬하게 믿는다.”고 했다.

제 7 장

우리의 양심을 얹매일 수는 없다

Not Binding on Our Conscience

성례전에 관한 구세군의 입장을 논하는 것은 구세군의 어떤 고질적인 편견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교회와 달라야 한다는 욕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성례전을 시행하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은 창립자들의 마음에 점진적인 변화 과정과 의식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이 성서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윌리엄 부스가 출생한지 이틀 만에 영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실이 있음 기억해야 한다. 그는 웨슬레 교회의 일원으로 성례전에 참석했었고 감리교회에서 목사로 안수 받고 성례전을 시행했다. 윌리엄 부스가 복음 전도 여행을 하던 1856년 장남 브람웰이 하리팩스(Halifax)에서 출생했다. 윌리엄 부스가 맥크레스필

드(Macclesfield)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할 때 다른 유아 30명과 함께 그의 아들에게도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원래 보수적인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후에도 어떤 교회를 세우려는 의사가 없었고 다만 복음 선교에만 관심을 두었다.

성례전은 기독교 선교회 시절에도 계속 거행되었다. 『반향과 추억(Echoes and Memories)』라는 저서에서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는 1874년 상황을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많은 교회가 행하는 성례를 따랐고 유아에게 세례를 주었다. 한 예배에서 30명이나 되는 유아들에게 내 자신이 물을 뿌리는 세례를 베푸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 의식은 점차 쇠퇴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의식을 뒷받침할 만한 성서적인 근거에 의한 강력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의식 대신 구세군에 헌아식을 소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성찬에 관하여 ‘1874년도에 내가 선교회의 책임자로 있을 때 성찬식을 매월 선교회 회원들과 교우들에게 베풀었다’라고 언급했다. 1870년도 선교회의 규약에는 매월 이 행사에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때로는 물을 사용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의식이 구세군 초기에 지속되었다. 남, 여 사관들에 의해 집행된 성례전의 많은 사례들을 1881년도까지의 보고서를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비국교도와 독립 교회 잡지(1882. 2. 9)의 한 기자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세군에서 여자 사관에 의해 성례전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구세군 역사 2권).

그러나 1878년 법적인가를 받은 구세군 교리에는 성례전에 관한 관례에 대하여 언급한 사항이 없다. 그렇게 되면서 지도자들은 성찬 의식을 계속 거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는 이런 의심을 맨 처음 경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심령과 생활의 변화보다 의식 자체에만 의존하게 될 때의 위험성을 매우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는 교회에서 여 교역자로서 많은 활약을 하였으나 당시 여성으로서 성례를 집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1873년부터 82년까지 윌리엄 부스의 참모였던 조오지 스코트 레일톤(George Scott Railton)은 모든 의식주의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기독교의 원리와 예배라기 보다는 오랜 옛 제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이런 의식이 불필요하다면 차라리 아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사실 대중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교회는 형식적인

종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갖게 되었다. 한편 구세군의 창립자는 예배 의식에 관한 문제로 많은 동요를 경험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음 전도 사업이 어떤 불필요한 것에 의해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복음 전도에 비하여 전통적인 성례전은 제 2 위에 불과한 것이다. ‘회심의 중심 요소는 바로 그의 가르침을 받는 마음과 영혼에 있다.’(헤럴드 벡바이, Harold Begbie).

벡바이(Harold Begbie)는 그의 저서 『구세군 창립자—윌리엄 부스(William Booth—Founder of The Salvation Army)』에서 윌리엄 부스가 ‘기독교 선교회(Christian Mission)’ 시절 말기에 깨닫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물 뿌리는 식의 세례를 받은 유아는 원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알고 있으나 그 물을 뿌리는 행위는 단지 상징에 불과한 것으로 그 세례로 인하여 유아의 성격이나 기질에 아무 변화도 주지 못한다. 성격이 의식에 의해 중생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득력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로서는 성례전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의 추종자들이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지 안 받아

야 할 것인지는 모두 그들의 자유에 맡겼다.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는 성만찬에서 받은 영적 은혜에 대한 것과 그가 다른 지도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부담스럽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내가 성만찬을 집행한 마지막 사관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동안 그의 부친이 브람웰에게 특별한 조치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지도자들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다른 사관들에게 성례전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1882년까지는 성찬식이 상례적으로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1879년 웨일즈(Wales)에 있는 애쉬산(Mountain Ash)에서 윌리엄 부스 측근자의 주재 하에 개최된 사관회(Officers' Meeting)에서 성찬식이 거행되었고 1878년 총회의 한 보고서에서도 성례전과 우애의 잔치(공동 식사, common meal)가 거행되었는데 “15분간” 성례식을 마친 후 우애의 애찬(love feast)이 이어졌다고 기록되었다.

1881년에 부스는 레일톤(Railton)이 기안한 성명서에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갖도록 현혹하는 그런 세례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직자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그런 성만찬을 아무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사제이다. 집회 마지막에 성례전을 시

행하므로 죄인들이 자비석에 나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벡바이(Begbie)는 “부스는 한사코 성례전을 거부했다. 그러나 거부한 것에 그는 신중히 검토하고 폐지할 때 발생할지도 모를 결과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한 후에 심각한 결정을 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던 중 이상하게도 영국 국교회의 교섭으로 완전히 성례전 전통과 결별하게 되었다.

1882년 2월 제복을 입은 500명의 구세군 병사가 성 바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전 8시에 두 명의 성공회 신부가 성례전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공교롭게 우리 병사들이 행군해 나가야 하고 밖에서 기다리던 일반 회중은 들어와야 할 시간이 되어 모두 퇴장했다(1882년 3월 16일자 구세공보). 이 일은 별로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으나 결국 요크(York) 대주교가 창립자를 대면하게 되었고 영국 국교회가 구세군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구세군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서신에 보면 ‘구세군 단체를 두 교회의 요청에 의하여 성찬 예식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고 언급했었다.

그해 5월 캔터베리 성직자 회의(the Convocation of Canterbury)에서는 구세군을 영국 국교회에 소속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연구

하는 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위원장은 후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트르로 주교(Bishop of Truro)였다. 잇따른 창립자와 회답에서의 주요한 논제는 성례전에 관한 것이었다. 6월 벤슨 박사(Dr. E. W. Benson)가 윌리엄 부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내가 진실로 염려하는 것은 귀하를 따르는 교인들이나 교회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귀하의 강압적인 계획 때문에 교회의 형제들과 성찬식을 함께 나누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내 왔다.

창립자는 이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뜻을 밝히게 되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 되었다. 즉 구세군 사관들은 그들이 성례전을 집행하기 전에 주교에 의해 임명을 받아야만 하는가? 여성들도 성직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구세군도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할 것인가? 구세군 병사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세례 받고 안수를 받아야만 하는가? 구세군 회관을 과연 성스러운 교회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각 영문마다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위해 영국 국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구세군 영문 자체에서 시행된 성례전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러한 토론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으나 곧 양쪽 모두 그들이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원리를 포기하고 쌍방의 요구를 받아 드릴 때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양편이 품위 있는 퇴각을 위해 양쪽이 서둘러 양보하게 되었다.

구세군에서는 레일톤(Railton)과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가 구세군의 군대식 조직과 행동의 자유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창립자는 구세군의 본질인 일치단결(unity)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에 재기된 의식 절차 문제들을 놓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구세군 병사가 추구해야 할 구원의 체험이 결여될 것이고 병사들이 구원 체험을 반드시 어디 선가에서 찾으려고 할 것임으로 이 의식에 동등한 어떤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 국교회 측에도 구세군 병사를 그들의 교회로 이끌기를 원치 않아 맹렬히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교회 안에서 구세군 병사가 탬버린을 치며 떠들썩하게 예배드린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악몽과 같았다. 예를 들어 성 바울 교회의 부감독은 국교회 성직자들이 구세군의 참석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가 성당에서 구세군 병사를 위하여 준비한 예배를 성당 안에서 드리기를 원치 않았다. 그 부감독은 징을 박은 구두를 신은 구세군 병사가 행여나 최근에 새로 단장한 대리석 바닥을 상하게 할까 봐 모처럼 준비한 순서를 거부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번 이미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애써 준비하였

으나 성당 안에서 교회 신자들과 구세군 병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다.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가 구세군인과 영국 국교회와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영원한 기쁜 추억’이 될 것이라고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합을 위한 협상은 점점 악화되었다. 구세군의 철야 예배를 공격하여 ‘사생아와 같은 자식을 낳으려고 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난이 나돌자 1883년 성직자 회의에서 모처럼 1882년도에 설립한 연구 위원회를 해체하고 말았다.

그 후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를 통해 구세군 성찬식을 다시 거행할 수 있도록 설득시킨 자가 있었는데 그는 영국 국교회의 선임 사제인 파라(Farrar)였다. 그러나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그 당시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는 구세군이 성례전에 대한 입장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 하나의 교회인가? 아니면 성례전 때문에 영국 국교회에 의뢰하는 복음 전도 기관인가에 관하여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의문을 품고 있었다.

1881년에 한 성직자가 창립자와 만난 후 말하기를 구세군인들 중에 ‘저희끼리 간단하게 함께 빵을 떼어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도 단체인 구세군의 예식은 아니었다고’하

였다.

『구세군의 역사 제 2 권(The History of The Salvation Army, Volume II)』에 ‘한 동안 구세군 병사가 개인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 국교회에 출석하였으나 결국은 중단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구세군과 영국 국교회 두 군데에 다 충성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다.

벅바이(Begbie)는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 자서전에서 헨리 소머셋(Henry Somerset) 여사의 사례를 들어 말하기를 ‘그녀는 구세군 병사로서 자원입대하였으나 성찬 의식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성례전에 참석하기 원한다면 영국 국교회를 가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아니오.’ 라고 대답했다.

한편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는 『메아리와 추억(Echoes & Memories)』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그 일에 진지한 확신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병사가 있다면 누구든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장을 주겠다.’ 라고 했다.

아마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구세군은 일정한 의식이 없이 성례전의 과정을 개척하게 되었다.

구세군의 성례로서 몇 가지 의식이 제안된 예식(Salvation Army

Ceremonies)있었으나 성례전 의식을 다듬어진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구세군이 전통적인 성례전 의식을 포기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하기로 한다.

1. 의식주의

캐서린 부스(Catherine Booth)와 레일톤(Railton)은 특히 형식주의가 사실상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믿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은총 그 자체보다 더 은총이 보여주는 표적에 의지하고 있었다. 캐서린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다. 기독교는 대부분 외형적인 의식에 의하여 은혜를 받는 것으로 되었다. 『대중적인 기독교(Popular Christianity)』에서 캐서린은 ‘죄로부터 구출’은 가짜 구원과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 ‘또 다른 가짜 구원은 많은 의식과 성례전을 통하여 전달된다.’는 것은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다.

2. 성서적인 근거

성례전이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성서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윌리엄 부스는 1883년

1월 2일 사관들에게 보내는 성명서에서 ‘나는 내 양심에 어긋나는 직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 사역들이 권위 있는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행하거나 가르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나의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은 빵 조각과 많은 량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반드시 나에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의식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 받는 세례이고 성령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 식사가 성찬이 되어야 하고 사실 전 생애가 성례이어야 한다.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은 그의 저서에서 ‘실제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교제로도 가능한 것이다. 어디서나 항상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했다.

3. 교회의 분열

기독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켜 왔다. 제이네(Jayne)주교는 ‘성체 성사는 신랄한 논쟁의 중

심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을 분열 시켰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이상 더 곡해되거나 빗나가고 역이용된 일은 없어졌다. 성례전의
후기 역사를 읽는다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서로 미워했던가를
쉽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4. 사역의 분리

성찬론자들(sacramentalists)이 주장하는 '사제직의 분리론(Separate Priesthood)'과 구세군에서 지지하는 '만인 사제론'(Priesthood of all believers)'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 사이에 있는 갈등이다. 이는 감독파의 성직 서품(episcopal ordination)과는 서로 일치될 수가 없는 것이다.

5. 여성의 위치

구세군에서는 이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성찬론자들은 여성들에게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구세군 지도자들에게는 여성의 사역이 성례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 카펜터 대장부인(Mrs. General Minnier Carpenter)은 '윌리엄 부스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모든 활동에서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평등하다는 원리를 끝까지 포

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구세군은 여사관도 여성 제사장 (Women Priests)이 되어 예배를 인도하게 되자 구세군에서는 완전히 성례전을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6. 성례전 없이도 가능한 거룩한 생활

퀘이커 교도들이 성례전을 행하지 않고도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성례전이 기독교인의 삶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외형적인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믿음에 굳건한 상태’를 유지했다.

1883년 4월 16일 엑세터 회관 집회(Exeter Hall Meeting)에서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는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석한 자들이 거룩한 삶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선포했다.

7. 포도주의 유혹

당시 수많은 구세군인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나 술고래였던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교회에서 평상시 사용하는 발효된 포도주에 쉽

게 유혹을 받았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도 있었으나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구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8. 교회와 충돌

부스는 교회를 조직하려고 하지 않았고 구세군에서 성례전의 문제로 교회와 충돌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교회와의 충돌을 피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세군의 입장을 네 가지로 적절하게 요약한다.

(가) 인도의 어떤 기자

“구세군인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의식하지 않은 때가 없다. 그들은 절대 그 의식을 저버리지 않는 때가 없다. 그들은 절대 그 의식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거나 복을 치거나 대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도 항상 주님의 발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나) 존 맥커리(John McQuarrie) 교수

맥커리(John McQuarrie) 교수는 『기독교 신학의 원리(Principles of Christian Theology)』에서 “구세군에서 성례전을 집례하지 않는다 할

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꾀박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했다.

(라) 윌리엄 부스의 말씀

1889년 3월 13일 엑터 회관 집회(Exeter Hall Meeting)에서 윌리엄 부스는 ‘물, 세례, 성례전,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구세군의 어떤 방식으로 활동적인 믿음과 내적 변화, 생동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CLOSER COMMUNION

발행일 | 2023년 6월 30일

지은이 | Clifford Kew

옮긴이 | 홍성호

펴낸곳 | 에디아

주소 | 04557 서울시 중구 퇴계로37길 14 기종빌딩 6층

전화 | 02-2263-6321

팩스 | 02-2263-6322

이메일 | koreaedia@hanmail.net

등록번호 | 제1996-000115호(1996.7.30)

ISBN • 978-89-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